

삼몽통일론(三蒙統一論)과 중국의 북방공정에 관한 연구*



김 재 기 (전남대학교)
(korispora@gmail.com)



국문요약

13-14세기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인들이 현재는 300만명 규모의 몽골리아와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 소수민족으로 약화되어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몽골인들이 과거 징키스칸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의 통일된 몽골을 위한 범몽주의(泛蒙主義) 운동이 구소련의 붕괴이후 19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소련의 해체이후 위성국가에서 벗어난 몽골에서는 범몽주의에 입각한 삼몽통일론(三蒙統一)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 내몽고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으로서 몽골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세계에 흩어져있는 몽골인들을 통합하려는 운동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인도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있는 티벳의 달라이 라마와도 연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인들의 통합운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민족통일국가론에 기반 한 북방공정이다. 북방공정은 만주지역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화하는 동북공정의 몽골 판 버전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내몽고자치구가 분리독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방공정을 통해 몽골인을 중국에 통합하려는 다민족통합 정책과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몽골인 들을 통합하려는 삼몽통일론은 북아시아 지역에서 두 민족이 충돌하는 '잠재된' 국제지역분쟁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국제지역분쟁의 관점에서 범몽주의에 입각한 삼몽통일론의 의미와 진행과정을

* 이 논문은 2014년 6월 24일 몽골 울란바타르 몽골국립대학에서 개최 된 제15차 세계한민족포럼(WKF)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몽골인들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몽골인들의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북방공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북방공정에 대한 몽골의 대응도 고찰해 볼 것이다.

주제어 : 몽골리아, 삼몽통일론, 북방공정, 분단과 분산, 내몽고, 범몽주의

I. 서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맞은 한민족은 동족상잔의 전쟁과 이념에 기반 한 체제대결을 겪으며 분단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 밖에 거주하는 80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에게도 고스란히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제국¹⁾을 건설했던 몽골인들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이다. 현재 1,000만 명 규모의 몽골인들은 몽골리아와 중국의 내몽고지역, 러시아의 바이칼호수 근처 공화국 등 주로 3개 국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통합과 통일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듯이 몽골인들도 하나의 몽골을 위한 범몽주의(泛蒙主義)운동이 19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몽골인들은 범몽주의에 입각하여 삼몽통일론(三蒙統一)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내몽고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는 몽골인들의 분리독립운동이 진행 중이다. 과계민족(跨界民族)으로서 몽골인들의 민족통합운동은 세계의 몽골인들과 연계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인들의 통합운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민족통일국가론에 기반 한 북방공정이다. 북방공정은 만주지역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화하려는 동북공정의 몽골 판 버전이다.

중국이 북방공정을 통해 몽골인을 중국에 통합하려는 다민족통합 정책과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통합하려는 삼몽통일론은 북아시아 지역에서 두 민족이 충돌하는 '잠재된' 국제지역분쟁이라 할 수 있다. 삼몽통일론은 지역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1) 13, 14세기 몽골제국은 역사상 존재했던 국가 중 가장 방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이었다. 가장 넓었을 때는 고려에서부터 헝가리에 이르렀고,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와 동유럽의 상당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몽골제국은 한 세기가 넘게 지속했고, 각 분국들은 그보다 더 오래 유지되었다(데이비드 모건 2012:1-2)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 논문은 국제지역분쟁의 관점에서 범몽주의에 입각한 삼몽통일론의 의미와 진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몽골인들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몽골인들의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북방공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북방공정에 대한 몽골의 대응도 고찰해 볼 것이다.

II. 분리독립운동과 디아스포라의 국제사회

1992년 소련의 붕괴이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 상호의존과 교류협력이 증가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민족과 종교 간에 폭력을 수반한 유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발생 배경은 민족분쟁, 종교분쟁, 영토분쟁, 역사분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Smith 1997:3-20). 특히 최근 다민족 국가의 민족 간 분쟁은 국제사회가 개입하면서 국제분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지역분쟁의 중심에는 소수민족 집단의 분리 독립운동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분쟁의 대부분은 지배체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자주적 민족국가를 설립하려는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예일 대학의 에이미 추아(Amy Chua) 교수의 세계화(世界化)가 세계화(世界火) 즉 민족갈등의 심화로 ‘불타는 세계(World on fire)’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척될수록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보다 유혈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직시한 관점이다(Chua 2003:1-22).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은 기존 정치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갖는 지배체제는 분리독립하려는 소수민족집단에 대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응 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는 소수민족의 정치적 독립은 절대 불허하고 동원 가능한 무력을 통해 강력하게 진압한다. 지배 국가는 분리 독립 세력을 반국가단체나 체제도전 세력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봉쇄한다(Gurr and Harff 1994:83-92). 이 과정에서 양측이 타협이 안 될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유혈충돌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국제분쟁이 된다.

유엔(UN)이라는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사회 이면에는 국가 없는 소수민족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 내 소수민족이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들이다. 지구상에는 자기 민족만의 자주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거주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또는 해외를 떠도는 디아스포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 없는 민족들은 UNPO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UNPO 2014).

UNPO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티베트인 위구르인, 쿠르드인, 몽골인 등을 비롯하여 55개의 민족을 대표하지 못한 민족들이 유엔에 단체를 등록하여 국제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를 떠돌며 독립국가 수립을 못한 채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집단을 ‘국가 없는 디아스포라’(stateless-diaspora)라 부른다. 소수민족 디아스포라들은 거주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 주류민족과 갈등관계 내지는 대립 관계가 되기도 하고, 상호간에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국제 분쟁의 대부분은 국가 없는 디아스포라들의 분리 독립운동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소수민족집단들의 최대 목표는 자기 민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수립운동은 지배체제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최근에 유혈충돌이 발생한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지배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티베트인들과 위구르인들을 들 수 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었다. 라싸에서는 유혈충돌이 일어나고 수 천명의 티베트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티베트인들의 분리 독립운동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다.(김재기 2010:72-73). 이후에는 100여명의 티베트인들이 연쇄적으로 소신공양(燒身供養)이라는 분신자살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 망명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중국체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심복대환의 하나는 동투르크스탄공화국(Republic of East Turkestan)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인들이다. 이들은 폭탄테러, 무장시위, 관공서 습격 등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여 분리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김재기, 2007:43-45). 2009년 7월 우루무치에서 수만 명의 위구르인과 한족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내 건국 60년을 앞둔 중국 당국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김재기 2013:102-103). 2014년 3월에는 곤명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고 4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우루무치 방문을 전후로 폭탄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비아 카디르 등 위구르망명정부와 연계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합과 분리 독립, 그리고 디아스포라 현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크라이나에 속해있던 크림자치주가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여 러시아에 통합되었고, 동부지역 2개 주도 분리 독립 투표과정에서 유혈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분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크림자치주는 분리 독립을, 러시아는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국경은 디아스포라를 수반하게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주에 각각 분산되어 살아 가야하는 디아스포라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분리 독립과 디아스포라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민족들이 다수 있다. 한때 거대한 세계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인 들도 대표적인 분단과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는 민족이다. 13-14세기 몽골제국의 통치기간은 짧았지만 그로 인한 몽골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대한 제국 몽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몽골인들의 운명은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근현대의 몽골인들은 소련과 중국의 톱바구니에서 분단되었고 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지역에 분산거주하며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1992년 소련의 붕괴는 몽골인들에게도 자주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디아스포라로서 고립적인 상태에서 살아야했던 몽골인들은 세계화와 개혁개방의 흐름을 타고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었다. 소련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몽골에서는 정치집단들의 정치적 아젠다로서 전세계 몽골 민족을 통일단결하려는 범몽주의와 삼몽통일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가장 많은 규모의 몽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북방공정을 통한 변강 안정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앞서 변강지역에서는 티베트 역사를 중국화를 위한 서남공정, 신강의 역사를 중국화하기 위한 서북공정, 만주지역의 역사를 중국화하려는 동북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Ⅲ. 몽골인의 디아스포라와 삼몽통일론

1. 과제민족으로서 몽골인: 규모와 분포

몽골인의 총인구는 1,000만 명 규모인데 <그림-1> 지도와 같이 중국 내몽고자치구와

신강위구르자치구, 청해성 등지에 580여만 명, 몽골에 300여만 명, 러시아의 브라트, 칼미크, 튜바 등의 공화국에 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미국 등 세계 12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1〉 몽골인의 거주 분포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Mongolia#mediaviewer/File:Mongols-map.png>

몽골인들은 전형적인 과계민족(cross-border ethnicity)²⁾으로서의 거주분포를 보이고 있다. 과계민족은 동일한 민족이 국경을 마주보며 거주하는 형태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제적인 민족관계이다. 몽골리아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중국의 내몽고자치구가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브라트공화국과 튜바공화국, 알타이

2)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 30여 개 민족이 중국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국가에도 동일한 민족이 집거하고 있다. 이들을 ‘과계민족’(跨界民族: Cross-boarder Ethnicity)이라 부르며 이들이 중국의 대외개방이후 새로운 민족문제로 등장하였다; 金春子·王建民, 『中國跨界民族』, (北京: 民族出版社, 1994); 葛公尚, “試析跨界民族相關理論問題,” 『民族研究』, 第6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1999); 曹興, “跨界民族問題及其對地緣政治的影響,” 『民族研究』, 第6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1999)

공화국과 국경을 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 몽골인 들이 거주하고 있다. 몽골인들은 국경에 의해 분단되어 국적을 달리하여 소수민족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몽골인은 브랏트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브랏트인은 남 시베리아의 몽골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범 몽골계의 종족으로서 브랏트 몽골(Buryat-Mongol)인 이라고 불린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 거주하는 브랏트인들은 13세기 징키스칸에 의해 통일 몽골의 구성원이 되었다. 17세기 중반에는 러시아의 서진에 대항하여 30년간 전쟁을 치른 후 몽골과 분리되었다. 1923년 브랏트몽골사회주의자치공화국으로 소련에 편입되었다가 1992년 러시아의 브랏트공화국이 되었다.

〈표 1〉 러시아의 몽골인 디아스포라 현황

행정구역	행정구역	전체인구	몽골족 인구	비율(%)
러시아 공화국	러시아 브랏트공화국	1,200,000	370,000	30%
	러시아 칼미크공화국	289,481	162,740	57%
	러시아 튜바공화국	307,930	249,299	82%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206,168	69,963	34.5%
	러시아 이르쿠츠크	142,000	50,000	28.4%
	러시아 치타주	79,100	40,000	20%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Mongols>를 중심으로 재정리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동쪽인 지금의 브랏티야공화국은 라마불교를 받아들이고 서쪽은 샤머니즘이 강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이중 부랏티야 공화국 120만 명 중 370,000명이 브랏트인이다. 치타주 아긴부랏트 자치구 79,100명중 40,000명 정도가 브랏트족이다. 이르쿠츠크주 우스티오르딘스키부랏트 142,000명 중 5만 명이 브랏트인이다.

다음으로 튜바 공화국에 240,000명 규모의 몽골인 들이 거주하고 있다. 튜바인들은 투르크종족이지만 불교를 믿는다. 튜바인 들은 1758년부터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신해혁명이후 1911년에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재빨리 이 지역을 보호령으로 선언하여 지배권 아래 넣었고, 1944년 10월에 튜바 자치주(Tuvinian Autonomous Obl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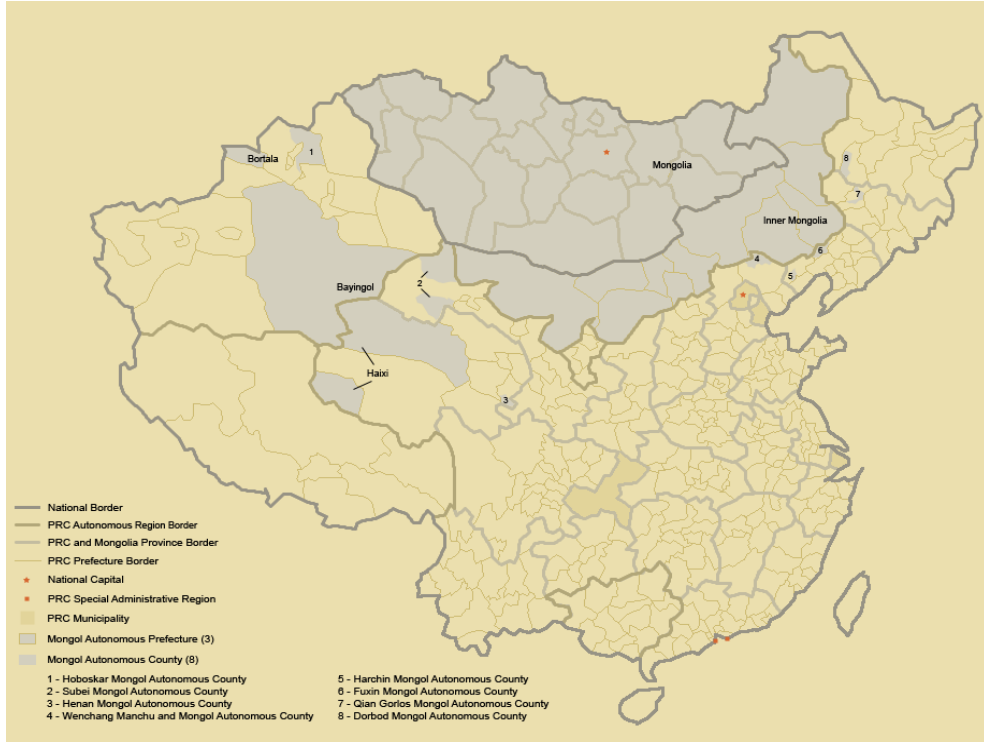
로서 소련에 편입시켰다. 그 후 1961년 10월 10일에 소련의 자치 공화국으로 승격되었다. 튜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은 1992년 3월 31일에 튜바 공화국(Republic of Tuva)이 되었다.

다음으로 칼미크공화국에 160,000명 정도의 몽골인이 거주하고 있다. 칼미크 공화국은 카스피 해 북서쪽과 볼가 강 하류 서쪽에 위치한 몽골계 공화국이다.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불교가 국교이다. 칼미크인 들은 반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 계통의 민족이다. 원래 중국 중서부에 거주하던 민족이었는데 중국인들에게 밀려서 17세기 초부터 볼가강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1771년에 러시아에 편입되고 러시아인 및 독일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게 되었다. 칼미크 자치주는 1920년 11월 4일에 성립되었고 다른 러시아지역에 살던 칼미크인들도 칼미크 자치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다. 이 지역은 1958년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었으나, 칼미크인들이 나치 독일과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자치 지역은 해산되었다. 1957년에 자치주가 회복되었다가 1958년에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었다.

알타이공화국에 70,000명 규모의 몽골인이 거주하고 있다. 알타이 공화국은 1922년 1월 1일에 소련의 자치공화국이 되기 전에는 알타이 지방이 포함된, 오리로트 자치주(Ойрот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로 있었다. 1948년 7월 7일에 개정이 되어서 고르노알타이 자치주(Горно-Алта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가 되었다. 1991년에 다시 개정되어 고르노알타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ASSR)으로 개정되었다. 1992년부터 알타이 공화국이 되었다.

가장 많은 규모의 몽골인 들이 거주하는 중국에는 성급 자치구로 내몽고자치구가 1947년 성립되었다. 내몽고자치구는 북쪽으로 몽골리아와 국경을 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과 접경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신강위구르자치구, 칭하이,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와 접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몽고자치구 인근 민족자치구와 성에도 몽골인 들이 거주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내몽고자치구의 몽골인 인구는 4,226,093명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2〉 몽골과 중국의 몽골인 분포³⁾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Mongols_in_China

자치주급은 3개가 있는데 청해성과 신강위구르자치구이다. 청해성 해서몽고족장족자치주(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는 고대에는 서강(西羌)의 땅이며, 동진 후기부터 수당시대에는 티베트의 유목민족의 나라나 티베트의 지배하에 있었다. 명초에는 동쪽 몽골 여러 부족이 진입하였고, 1639년부터 오이라트족이 이주해, 그들은 구시 칸(Güshi Khan) 왕조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1954년 해서몽골족카자흐족자치구가 성립하였고 두란에 자치구 인민 정부가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1955년 자치주로 개칭되었다. 1963년에 해서몽골족장족카자흐족자치주로 개칭되었다. 1985년에 카자흐족이 신장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해서몽골족장족자치주로 개칭되었다.

3) 2010년 중국의 인구보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몽골인들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자치구 하나, 자치주 3개, 자치현 8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몽골과 중국의 몽골인 인구 현황⁴⁾

행정구역	행정구역	몽골족 인구	비율(%)
몽골리아	몽골(2014년)	3,226,516	95%
중국 몽골자치구(성급)	내몽고자치구(2010년)	4,226,093	17.1%
중국 몽골자치주	청해성 해서몽고족장족자치주자치주(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	24,040	7.23%
	신강 파음곽릉몽고자치주(巴音郭楞蒙古自治州)	43,544	4.12%
	신강 박이탑랍몽고자치주(博尔塔拉蒙古自治州)	23,927	5.64%
중국 몽골자치현	중국 허북성 위장만족몽고족자치현(圍場滿族蒙古族自治縣)	169,887	30%
	중국 요녕성 부신몽골족자치현(阜新蒙古族自治縣)	400,000	7.7%
	중국 요녕성 객라심좌익몽고족자치현(喀喇沁左翼蒙古族自治縣)	269,972	64%
	중국 길림성 전곽이라사몽고족자치현(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	172,026	32%
	중국 흑룡강성 두이백특몽고족자치현(杜爾伯特蒙古族自治縣)	141,495	34%
	중국 감숙성 숙북몽고족자치현(肅北蒙古族自治縣)	4,112	31.5%
	중국 청해성 하남몽고족자치현(河南蒙古族自治縣)	28,879	89.5%
	중국 신강 화포극세이몽고자치현(和布克賽爾蒙古自治縣)	149,857	0.81%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Mongols_in_China를 중심으로 자료 재정리

신강 박이탑랍몽고자치주(博尔塔拉蒙古自治州) 원나라와 명나라 시절에는 오이라트족의 거주지였다. 청나라 때 차하르 몽골족이 칼간에서, 토르구트 오이라트족이 불가 강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4년 7월 13일에 이곳에 자치주를 설치하였다. 신강위구르자치구 파음곽릉몽고자치주(巴音郭楞蒙古自治州)는 1954년에 설립되었고 몽골족은 인구의 35%가 거주하고 있다.

중국에 몽골족의 자치현급은 8개가 있는데 내몽고자치구와 인접하고 있는 곳이다, 요녕성은 66만명 규모로 내몽고자치구 다음으로 많은 곳이다.⁵⁾ 요녕성 객라심좌익몽고족자치현

4) 2014년 몽골 국가통계국자료, 2010년 중국인구보편조사자료를 토대로 자치구급, 성급으로 접근하여 정리 함

(喀喇沁左翼蒙古族自治县). 요녕성 부신몽고족자치현(阜新蒙古族自治县)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북성 위장만족몽고족자치현(围场满族蒙古族自治县), 흑룡강성 두이백특몽고족자치현(杜尔伯特蒙古族自治县), 길림성 전곽이라사몽고족자치현(前郭尔罗斯蒙古族自治县), 감숙성 숙북몽고족자치현(肃北蒙古族自治县), 청해성 하남몽고족자치현(河南蒙古族自治县), 신장위구르자치구 화포극새이몽고자치현(和布克赛尔蒙古自治县)이다,

이와 같이 몽골인들이 분산거주하며 분단민족으로 거주하게 된 배경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제국의 패망이후 만주족의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청 강희제는 세 번에 걸쳐 몽골을 침략하여 준가르 지역을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으며, 건륭제도 두 차례의 준가르 원정에 나서 천산남로와 북로를 장악하여 몽골을 무너뜨렸다. 이후 청나라는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몽골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지배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 뒤에는 러시아와 중화민국에 의해 몽골인들의 분단이 되었다. 몽골의 분단은 몽골내부의 분열과 중국과 소련(러시아)의 정책과 관련이 깊다(김재기 2001:146). 중국에 속한 내몽고는 1947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 내몽고자치정부가 성립되고, 1949년 내몽고자치구로 개칭하여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부가 되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외몽골은 1924년에 몽골인민공화국을 건립하고 1992년에 몽골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2. 범몽(泛蒙)주의와 삼몽통일론

몽골인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흩어져 거주하며 하나의 몽골 국가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 초반 동유럽과 소련의 해체이후에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 5) 2000년第五次全国人口普查资料统计显示, 辽宁蒙古族主要聚居在)辽西`辽北`辽东地区, 辽南各市县也有部分蒙古族散居`阜新地区220,422人, 朝阳地区198,700人, 沈阳地区94,530人, 葫芦岛地区36,098人, 铁岭地区60,000万人, 锦州地区30,000人, 丹东地区30,000人, 大连地区6,000人, 本溪地区3,000人, 抚顺地区3,000人, 盘锦地区3,000人, 辽阳地区2,000人, 营口地区2,000人, 鞍山地区2,000人, 其他各市的管区均有散居的蒙古人`。全国蒙古族人口5,814,000人, 蒙古族人口占全国少数民族人口的11.52%`。辽宁省蒙古族人口669,972人, 占全国蒙古族人口总数的12.2%, 除内蒙古自治区外居全国第二位`。全省有2个蒙古族自治县`12个蒙古族乡镇`5个蒙古族满族混合乡`即阜新和喀喇沁左翼两个蒙古族自治县, 有沈阳市法库县四家子蒙古族乡`丹东市凤城市大堡蒙古族镇`阜新市彰武县二道河子蒙古族乡`苇子沟蒙古族乡`大冷蒙古族乡`朝阳市北票市马友营蒙古族乡`凉水河蒙古族乡`建平县三家子蒙古族乡`凌源市三家子蒙古族乡`朝阳县松岭门蒙古族乡`朝阳县乌兰河硕蒙古族乡`葫芦岛市建昌县二道湾子蒙古族乡等12个蒙古族乡, 沈阳市康平县柳树屯蒙古族满族乡`沙金台蒙古族满族乡`东升满族蒙古族乡`西关屯蒙古族满族乡`彰武县西六家子蒙古族满族乡等5个蒙古族满族乡`。

변화 속에서 1989년 12월 10일에 몽골에서는 “몽골민주연맹(Mongolian Democratic Alliance)”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1990년 초 이 조직은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0년 12월 18일에 “몽골민주당”을 만들었다. 몽골민주당의 지도자인 차이하긴 엘베크도르지(Tsakhiaagiin Elbegdorj)⁶⁾는 창당대회에서 470명 당 대표들에게 징기즈칸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대몽골국을 건립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조직을 확대하여 “대몽골주의” 활동을 시작하고 “삼몽통일(三蒙統一)”을 추구하였다. 삼몽통일의 지역으로 현재 러시아 지역인 부랴트 공화국, 튜바 자치 공화국, 칼미크 자치 공화국,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신강의 볼타라 몽골자치주와 바음구령(巴音郭楞) 몽골자치주를 합쳐서 “대몽골국”을 성립하는 것이다. 이들은 “징기즈칸의 자손들이여! 행동하라, 새로운 몽골세기를 환영할 준비를 하라”고 주장하였다(葛公尙 2006:144).

1991년 3월 31일, “몽골대학생연합회”에서는 징기즈칸의 대몽골 건립 785주년, 몽골국의 성립 80주년과 몽골인민혁명 70주년을 맞이하여 제1회 세계 몽골족 대학생, 청년 “나담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몽골, 소련, 중국 및 세계 기타 국가와 지역에 살고 있는 몽골족 대학생, 청년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회의에서 몽골 전 총리는 “스탈린시기 소련은 대규모적으로 몽골족을 학살하였다”고 발언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내몽골의 대부분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몽골정부가 세계의 모든 몽골인들에게 몽골 국적을 주어 몽골에서 몽골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년부터 몽골민족 진보당, 몽골부흥당, 몽골국가협회, 몽골대학생연합회, 징기즈칸 재단 등의 조직들은 국내외로 “범몽(泛蒙)주의”를 기반으로 “삼몽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내몽고자치구를 중심으로 몽골인들의 분리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1962년 집녕시(集寧市)에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206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중국과 몽골간 국경 획정을 반대하고, 내몽골과 외몽골의 통합을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내몽골·신강·청해·감숙·동북3성 등지에서 내몽골 인민혁명당(IMPRP) 당원들이 반중국 운동을 전개했으며 수십만명이 투옥되기도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인 1981년에 대규모 학생시위가 3개월간 지속되었다. 내몽고·북경·감숙·청해·신강 및 동북 3성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한 이 시위는 한족을 내몽고에 이주시키기로 정책에 항의해서 일어난 반정부 운동이다(박병석 1999:508).

6) 현 몽골 대통령이며 총리를 두 번 역임했고, 2009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3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내몽골에서 보다 조직적인 분리독립운동은 1990년 3월부터 활동한 이극소맹민족문화학회(伊克昭盟民族文化學會)와 현대민족협회(現代民族協會)이다. 이 단체는 주로 몽골 청년 당정간부로 구성되었으며 몽골민주당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몽골민족의 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았지만 지도부가 모두 구속되었다.

1992년 5월 호화호특(呼和浩特)에서 하다(Hada)를 주석으로 하는 남몽골민주연맹(Southern Mongolian Democratic Alliance, SMDA)을 설립하였다. 이 단체의 목표는 내몽골 인권과 민주 가치 촉진, 내몽골에 대한 한(漢)의 식민지배 종식, 내몽골의 자주독립의 달성이다. 이 단체는 1995년 12월 징기스칸(Chinggis Khan)의 사진을 들고 몽골인의 종교·문화·경제·정치 권리를 위한 평화시위를 진행하였으나, 30여 명이 체포되었고 하다(Hada)는 국가분열죄로 체포되어 1996년 12월 15년형을 언도 받았다.⁷⁾

내몽골인들의 중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은 해외에서도 진행되었다. 1981년 해외로 망명한 학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족 이주 정책과 관련한 공산당 28호 문건에 항의하기 위한 내몽골인권수호연맹(Inner Mongolian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본부를 독일에 설치하고, 프랑스·영국·몽골·미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인권과 독립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들은 Southern Mongolia, Khara-Erge, Voice of Southern Mongolia 등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한편 1993년 12월 8일 Free Mongolia Movement가 조직되었다. 1997년 3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각지의 몽골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내몽골인민당(The Inner Mongolian People's Party, IMPP)을 조직하고 내몽골의 자유와 독립 쟁취를 선언하였다(박병석 1999:509).

티베트나 신강에 비해 비교적 잠잠하던 내몽고자치구에서 2011년에 5월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이번의 시위는 자치구 내의 탄광업체에 대해 규탄시위를 벌이던 몽골 유목민 모르겐이 한족이 운전하던 석탄 운반 트럭에 치여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시린하오터시의 정부청사에서 5월 23일 처음 시작된 시위는 수백 명의 몽골인을 집결시켰고 화요일에는 학생들의 대거 참여로 2천명 이상을 이루면서 거리시위로 발전했다(YTN 2011).

이와 같이 몽골인들은 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중국 독립운동과 대몽골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몽골과 티베트 망명정부⁸⁾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내몽골 분리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대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7) <http://www.innermongolia.org>

8) 2006년까지 달라이 라마는 7회나 몽골과 브라트 등을 방문하여 몽골인들과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지지를 받고 있다.

IV. 중국의 북방공정과 몽골의 대응

1. 범몽주의와 삼몽통일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

구소련의 해체와 15개 독립국가의 출현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지구인 신강, 티베트, 내몽고 등이 이에 영향을 받아 분리독립 운동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범몽주의에 기반을 둔 삼몽통일론도 구소련의 해체이후 몽골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확산된 운동이기 때문에 내몽고자치구가 있는 중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이후 서방국가들의 이목은 중국에 집중되었으며 삼몽통일론의 지지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인식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 가을, 몽골민주연맹총협의원들이 3개월이나 되는 방미기간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비용을 제공하고 재미 몽골인들과의 접촉을 하게 하였으며 범몽(泛蒙)주의 활동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분열하는 정치적 책동이라고 보고 있다.

몽골에서 주장되는 삼몽통일론에 대해 중국은 서방국가와 연계된 중국 분열책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삼몽통일(三蒙統一), 내외몽(内外蒙)합작, 만몽(滿蒙)독립 등은 20세기 초부터 주장했던 중국을 분열 시키려는 운동이라 보았다(葛公尙 2006:144).

1907-1910년에 일본과 러시아는 만몽(滿蒙)을 분할하고 다른 제국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일러(日俄)밀약〉을 두 번이나 체결하여 몽골의 독립을 계획하였다. 192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본은 몽골통일에 대하여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 만몽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계를 정복하려면 중국을 우선 정복하여야 하고 중국을 정복하려면 우선 몽골을 정복하여야 한다.” 이는 일본군의 진정한 만몽(滿蒙)독립의 목적에 대한 야심을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의 일부조직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은 범몽(泛蒙)주의와 삼몽통일(三蒙統一)을 지지하고 있다. 일몽협회(日蒙協會)회장들은 기회를 이용하여 몽골민족은 하나의 통일된 독립된 국가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골민주연맹의 대표인 다목딩소영(达木丁苏荣)은 “하나의 민족이 자신들만의 종족과 문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 통일된 종교와 통일된 문자가

있어야 몽골국 통일에 필요한 기초를 닦아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1991년 7월 티베트 달라이라마를 울란바토르에 초청하여 반중국 활동을 전개하였다. 몽골불교연맹이 주관하여 티베트 독립 지지와 삼몽통일(三蒙統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葛公尙2006:146-147).

지금 몽골의 티베트 라마불교는 급격히 확장하여 120개 사원과 6000여명의 라마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티베트 라마 불교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일부 종교정당을 건립하고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범몽주의에 기반하여 삼몽통일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가 개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중국의 북방공정과 몽골의 대응

중국은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변강지역에서 다양한 공정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크게 서북공정, 서남공정, 남방공정, 동북공정, 북방공정으로 나뉘며 소수민족문제 해결 및 주변국에 대한 패권적 지위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몽골과 내몽골을 대상으로 북방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북방공정은 중국 소수민족으로서 몽골인의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재해석 작업의 일환이다. 그 정치적 목적은 몽골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켜 중국의 정체성을 시공간적으로 확대 내지 심화시킴으로서 중국의 북방 변강지역에 정치적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몽골은 1921년 이후 내몽골과 몽골로 분리되고,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내몽골은 중국내 소수민족 자치구가 됨으로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신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다민족통일정책이다. 소수민족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헌법에서 인정하고 민족구역자치법 등을 통해 우대를 제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몽고자치구의 몽골인들의 조직적인 저항운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몽골인들이 중화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부정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인 뿐만 아니라 티베트족, 위구르족, 회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 민족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의 북방공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중앙민족대학 비효통교수의 중화민족다원일체론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근거하고 있다. 북방공정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중국 북방의 몽골 역사에 적용하려는 작업이다. 몽골의 역사에 대한 중국의 기존 관점은 한족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원제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다루었다. 즉 전통적인 중화사상과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오랑캐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만주족의 청나라와 몽골족이 세운 원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면서부터 다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중화민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특히 북방공정은 쿠빌라이가 세운 원나라는 중국이라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서 원제국이 세운 왕조까지도 중국 역사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은 현재 몽골도도 중국의 영토로서 회복되어야할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북방공정은 몽골족 역사 편찬 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이천석 2010:177-182). 중국에서 나온 최초의 몽골사 개설서인 「몽고족간사」는 1985년 11월 「중국소수민족총서」의 하나로 출판되었다. 「중국소수민족총서」의 출판은 일찍이 1956년 모택동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책의 주요 논지는 “몽고족의 역사가 중국이 주장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에 이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계승발전되어 가는가”이다.

이어서 1991년에 「몽골족통사」 3권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 북방공정의 핵심논리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책에서 몽골 및 대원제국은 중국 최초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시작이다. 북원과 명나라는 별개의 민족국가가 아닌 원나라의 영토에서 일어난 남북정권이 다. 따라서 오늘날 몽골국의 영토는 중화민족의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몽골제국 및 대원제국의 영토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역사적 영토라는 관점이다.

2001년에 전자판 「몽골족통사」가 8편 249항목으로 출간되었는데 북방공정의 3대 논리가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2002년 11월 내몽골의 몽골민족통사위원회는 5권 6책의 「몽골민족통사(蒙古民族通史)」를 편찬했는데 몽골 민족기원에서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학문적으로 가장 완비된 역사서라고 지칭되고 있다. 이 책은 몽골민족은 중화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논조와 북원이 중화민족의 영토라는 관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박원길 2007:394-296).

2004년 12월 한문 4권, 몽골문 6권으로 구성된 통칭 10권본이라 불리는 「몽골족통사」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대원제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이루기 이전의 북방민족의 역사가 몽골족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책 또한 기원전 5천년부터 13세기까지의 몽고제국 및 대원제국의 영토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역사적 영토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그림-3〉 중국에서 간행된 몽고족통사와 몽고비사

중국은 대몽골제국 성립 800주년을 맞은 2006년 7월 1일에 징기스칸 기념 논문집을 출간하여 징기스칸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민족영웅이라는 것을 몽골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 선포했다. 이러한 논리는 곧 “원나라는 몽골의 지배사인가, 중국사인가”로 귀결된다. 또 이 귀결은 “징기스칸이 몽골인인가, 중국인인가”의 답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박원길 2007:392).

사실 1969년 중소분쟁 발생 이후 1980년대까지 몽골인민공화국의 학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몽골 역사왜곡에 반박하는 글을 종종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몽골국 학자들의 대응이 예전에 비해 아주 미약해졌다.⁹⁾

9) 몽골국립대 바트투르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중국은 몽골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몽골제국을 일으킨 징기스칸마저도 중국 사람이라고 교과서에 기술하는 등 몽골 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학자들을 동원해 공공연히 ‘몽골을 되찾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몽골의 중국화’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몽골 학계에서 몽골사를 3권으로 정리해 출간하자 중국측은 곧이어 8권짜리 몽골사로 정리했고,

그 첫째 요인은 1992년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연구 환경이 많이 열악해진 데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학자들의 활동이 가능하던 시대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약화되었다. 둘째로는 몽골 역사학의 대가들인 수흐바야타르, 아쉬참츠, 나찰도르지 등의 사망이다. 이들의 사망과 후속세대의 약화는 몽골의 대응에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내몽골이나 북경 등 각지에서 열리는 국제 몽골학 학술회의에 몽골국 학자들을 초청하여 환대하는 물질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방공정에 대한 연구이론을 간과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북방공정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인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박원길 2007:394).

이러한 학문적 흐름과는 별도로 중국의 연이은 역사왜곡에 대해 몽골국은 2006년 7월 징기스칸 제국성립 80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한 뒤 징기스칸이 중국인이 아닌 몽골인이라는 것을 세계에 공포했다. 아울러 몽골국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는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며 역사는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역사서들을 징기스칸 제국성립 800주년 기념 성과물로 출간하기도 했다.¹⁰⁾

그러나 엄청난 국가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중국의 북방공정에 대응하는 것은 300만명 규모의 인구를 가진 몽골의 여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북방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학자집단이 뒷받침 해주어야 하는데 몽골의 현실은 미약하기만 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며 G2로 급성장한 15억 인구의 중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몽골측이 5권을 발간하자 지난해 중국 측은 15권을 펴내 물량공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바트투르 교수는 “당시 중국 학계 및 언론은 몽골 역사의 연구중심이 중국이 됐다고 선전했다.”고 전했다. 바트투르 교수는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중국의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원나라=중국 국가’라고 기술돼 있는데 바트투르 교수는 “원나라를 세워 중국을 정복한 쿠빌라이칸 이후 명나라 설립 전까지 중국을 통치했다.”면서 중국의 교과서 왜곡을 비판했다. 바트투르 교수는 2007년 5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국 역사학자들의 역사인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세계일보 2007/5/14).

10) 몽골제국 800주년 행사로 800명의 기수와 800명의 모린호르(마두금) 연주자를 동원하여 국가인 에르트니 사이항을 연주하고 수흐바야타르 광장에 징기스칸, 어거데이칸, 코빌라이칸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였다.

V. 결론

몽골인은 한민족과 같이 분단(devided)과 분산(diaspora)의 민족이다. 300만 규모의 몽골리아와 중국의 내몽고자치구와 3개의 자치주, 8개의 자치현에 과계민족으로서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에도 바이칼 호수 주변의 브라트공화국, 투바공화국, 칼미크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이르크츠크주 등에 80여만명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이후 범몽주의에 기반하여 삼몽통일론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체첸, 중국의 티베트나 신강지역과 같이 격렬한 분리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계기¹¹⁾만 마련된다면 폭발력을 지닌 ‘잠재적’ 분쟁지역이다.

삼몽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많은 몽골인 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내몽고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가능한 일이다. 비교적 규모 있게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나 신강위구르인들의 분리독립운동을 상황을 보면 내몽고의 분리 독립 가능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러시아도 체첸을 제외하고는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브라트나 투바, 알타이공화국의 몽골인들이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내몽고자치구나 러시아 브라트 등과 연계된 몽골인들의 삼몽통일운동은 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분쟁 지역이다. 아직 가시적인 유혈충돌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계기만 마련되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중국은 몽골의 역사를 중국화하려는 북방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인들도 한민족과 같이 분단되고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북방공정에 의해 몽골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만주지역 한민족사가 중국역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한민족과 몽골인들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변강지역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화하려는 동북공정, 북방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다.

11) 이러한 잠재력은 1990년대 이후 10여 년 동안 비교적(특히 티벳이나 신강과 비교하여) 잠잠했던 내몽고자치구에서 2011년 5월부터 1개월가량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 김재기. 2001. 『중국-티베트 민족갈등의 정치적 동학』. 전남대 정치학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동투르키스탄 분리독립운동과 중국의 대응,”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42, 43-67.
- _____. 2010. “티베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55, 71-95.
- _____. 2013.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북중경제협력.” 『한국동북아논총』 66, 99-117.
- 데이비드 모건. 권용철 역. 2012. 『몽골족의 역사』. 서울: 모노그래프.
- 박병석. 1999.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서울: 교문사.
- 박원길. 2007. “북방공정의 논리와 전개과정연구.” 『고구려연구』 29, 381-400.
- 이천석. 2010. “정체성의 정치: 중국 북방공정과 몽골사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7(3), 169-192.
- Chua, A. 2003. *World on Fire: How Exporting Free Market Democracy Breeds Ethnic Hatred and Global Insecurity*. New York: Doubleday.
- Smith, A. 1996.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London: Blackwell.
- Gurr, T. A. and B. Harff. 1994. *Ethnic Conflict in World Politics*. Westview Press.
- 葛公尙. 2006. 『當代國際政治与跨界民族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 金春子·王建民. 1994. 『中國跨界民族』. 北京: 民族出版社.
- 葛公尙. 1999. “試析跨界民族相關理論問題.” 『民族研究』 第6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 曹興. 1999. “跨界民族問題及其對地緣政治的影向.” 『民族研究』 第6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http://www.unpo.org>

<http://www.innermongolia.org>

<http://www.google.co.kr>

<http://www.ytn.co.kr>

<http://en.wikipedia.org/wiki/Mongolia#mediaviewer/File:Mongols-map.png>

http://en.wikipedia.org/wiki/Mongols_in_China

● 투고일 : 2014. 9. 30 / 심사일 : 2014. 10. 22 / 게재확정일 : 2014. 11. 3

| Abstract |

A Study on the Three Mongolia Unification Movements and China's Northward Project

Kim Jai Gi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currently a scale of 10 million people resided mainly in the area of Russia's Baikal Lake who are scattered in the three countries: Mongoli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nner Mongolia region. Mongolians experienced three Mongolian unifications(三蒙統一) based on the Pan Mongolism(泛蒙主義) since the 1990s.

China fixed herself into framework of unification multiethnic-state, and tried the work of a historical incorporation to change Mongolian history for Chinese history. The Northward Project is a wide spread reinterpreting work for the ethnic minority history. And a historical reinterpretation of a viewpoint that the past days must serve the present comes from its political goals. So it has been seen as multi-national China in sight of a political stability and unification.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for separation from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 progress in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This movement is associated with United States and Japan. The three Mongolian unification movements are 'potentially' can be called an international conflict.

This paper is observ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rnational regional conflict. First, I will examine Mongolian Population and its distribution in the world. Second, I will research the three Mongolian unification movements and The Northward Projec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addition, I will consider how Mongolia responded to The Northward Project of PRC.

<Key words> Three Mongolian Unification Movements, Northward Project of PRC, Divides and Diaspora Mongolian, Inner Mongolia, Pan Mongolism.